

#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노인의 성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윤 현 숙

(한림대학교)

이 미 진

(이화여자대학교)

## [요 약]

본 논문은 서울과 춘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화와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의 1차년도와 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성과 거주 지역에 따라 은퇴로의 진입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n=1,124)을 도시 남성노인, 농촌 남성노인, 도시 여성노인, 농촌 여성노인으로 구분하여 은퇴로의 진입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도시 남성노인에게서만 은퇴로의 진입이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은퇴로의 진입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가 노인의 성,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며, 이러한 차이는 성과 거주 지역에 따라 생애주기 동안 경험한 경제활동, 가정내 역할, 은퇴 이후 역할 등의 차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주제어: 은퇴, 심리적 안녕, 성, 거주 지역, 종단적 연구

## 1. 서론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이론적 시각이 존재해 왔다. 연속이론(continuity theory)에 의하면, 개인은 행동과 사고, 생활양식의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은퇴가 반드시 부적응과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 이 논문은 2002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3-074-BM1028).

다(Atchley and Barusch, 2004). 연속이론의 관점에서, 애칠리(Atchley)는 은퇴에 적응하는 과정을 7개의 단계로 나눈 후, 은퇴 후 적응은 단계별로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Atchley는 은퇴 직후 단계를 직장생활의 제약과 의무에서 벗어나, 은퇴가 주는 여유로움과 한가로움을 즐기는 밀월단계(honeymoon)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역할이론(role theory)에 의하면, 은퇴는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의 상실은 역할이 부여하는 자아정체감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Quick and Moen, 1998). 은퇴와 심리적 안녕에 관한 기존의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역할이론에서 설명하듯이 은퇴는 수입의 감소와 역할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졌다(김애순·윤진, 1995; 신화용·조병은, 2001; 이가옥·이지영, 2005; 지연경·조병은, 1991; 한혜경, 2002). Atchley가 은퇴 직후를 밀월단계로 설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의 한 질적 연구에 의하면 은퇴 직후에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가옥·이지영, 2005). 또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은퇴 후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지연경·조병은, 1991; 최성재, 1989), 은퇴 직후 밀월단계를 즐길 수 있는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세대 노인의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여가'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 후 일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안녕하지 못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러나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은퇴자의 스트레스(지연경·조병은, 1991)나 생활만족도(김애순·윤진, 1995; 신화용·조병은, 2001)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은퇴와 심리적 안녕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는 남성만을 표본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 초반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40대에 다시 피크를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장지연·호정화, 2002), 남성에 비해 여성은 결혼 후 임신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단절 및 불연속성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의 단절 및 불연속성에 대한 경험은, 경제활동의 중단인 은퇴가 여성에게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로 인한 어려움에 보다 쉽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고 무급가족종사자나 임시·일용직으로 일해 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김지경, 2005), 저임금과 종사사의 지위가 낮다는 점은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인해 잃게 되는 역할상실감이 그만큼 적을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은퇴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다른 가정내에서의 역할 때문에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은퇴 이후,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적 관계는 축소됨에 따라, 가정내에서의 역할과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은퇴한 남성노인은 일생동안 '직장'과 '일'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온 데 비해, 은퇴한 여성노

인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과 같은 가정 내 일들을 경제활동과 병행하여 왔기 때문에 은퇴 이후 가정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데 어려움을 덜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은퇴의 개념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산물로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대부분 피고용자로서 소속 직장의 비자발적인 퇴직제도에 의해 은퇴를 하거나 단순노무직 종사자이었다가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다(정경희 외, 2005).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도시지역에서 은퇴자 노인은 마땅히 할 일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퇴는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중돈·조주연, 2000; 이가옥·이지영, 2005). 이에 반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대부분 1차 산업인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sup>1)</sup> 이들에게 은퇴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농촌지역 노인은 도시지역 노동자처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은퇴라는 사건(event)을 경험하기보다는 노동의 양을 줄여가면서 점차적으로 은퇴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은퇴하였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능력에 맞게 농사를 짓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노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완전한 중단은 건강의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은퇴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보면(박경숙, 2003) 농촌에서도 은퇴 현상이 존재하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비자발적인 퇴직제도 등에 의해 은퇴를 강요당하기보다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본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은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 노인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 오던 농사일을 그만둠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거나 고된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할 수 있다(윤순덕·한경혜, 2004; Drentea, 2002). 그 결과, 심리적 안녕감이 증진되거나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노인이 경제활동이외에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척, 이웃, 친구에 대한 일상적이며 비공식적 형태의 상호 부조에 참여함으로써 은퇴 이후에도 노인이 할 일이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다(윤순덕·한경혜, 2004). 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거나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국내문헌은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혹은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라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주지하다시피, 은퇴와 심리적 안녕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종단적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로의 진입이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의 성, 거주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노인의

1) 전국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경희외(2005)에 의하면, 도시지역 노인의 최장 종사 직업은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자가 20.6%, 농·어·축산업이 25.7%, 단순노무직이 23.6%인데 비해, 농촌지역 노인의 최장 종사 직업은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자가 7.7%, 농·어·축산업이 64.4%, 단순노무직이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거주지역에 따라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다(김지경, 2005; 윤순덕·한경혜, 2004; Marshall, Clarke, and Ballantyne, 2001; Quick and Moen,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노인의 성과 거주지역을 조합한 4개 집단(도시남성, 농촌남성, 도시여성, 농촌여성)으로 나누어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의 성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 노인의 성과 거주지역의 집단별로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 2. 이론적 배경

### 1) 은퇴의 개념

일반적으로 은퇴는 경제활동을 그만둔 상태로, 은퇴를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장지연·호정화, 2002). 객관적인 방법은 일정 연령이 지난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은퇴를 하였다고 보거나, 연금을 받고 있으면 은퇴자로 정의하기도 한다(김지경, 2005; Kim and Moen, 2002). 그러나, 연금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서구 사회에서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연금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이 방식은 공적 연금을 받은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주관적인 방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은퇴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여 그 응답을 기준으로 은퇴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Drentea, 2002; Ross and Drentea, 1998; Warr et al., 2004). 이 방법은 과거의 노동시장경험이 있어야만 은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측정상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김지경, 2005). 따라서 은퇴에 대한 개념은 본인이 은퇴를 하였다고 응답하고, 과거에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측정방법이 될 것이다.

### 2) 이론적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역할이론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설명한다(Kim and Moen, 2002; Quick and Moen, 1998). 먼저, 역할이론에 의하면, 은퇴는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며, 역할의 상실은 자아정체감의 위기로 이어져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특히, 개인이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이 본인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은 심리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국외의 실증적 연구들은 은퇴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Drentea, 2002; Marshall et al., 2001; Mirowsky, and Ross, 1992; Moen, 1996; Ross and Drentea, 1998; Warr et al., 2004; Wells and Kendig, 1999). 예를 들어, Drentea(2002)는 은퇴자는 비은퇴자에 비해 자기통제감(sense of control)은 낮지만 심리적 불안(anxiety)이나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있으며, 우울증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은퇴에 대한 초기 연구는 대부분 횡단적 연구로 은퇴자와 비은퇴자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은퇴로의 진입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Kim and Moen, 2001). 은퇴 전후의 심리적 안녕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은퇴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1-2년 이내에 은퇴생활에 적응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Reitzes, and Mutran, 2004; van Solinge and Henkens, 2005).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55세 이상 근로자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van Solinge and Henkens, 2005), 은퇴자의 46%는 은퇴 후 1년 만에 적응을 하고, 32%는 6개월 안에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자의 배우자의 59%는 1개월 안에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 1년 후에 은퇴자와 비은퇴자를 비교하면, 두 집단간의 심리적 안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은퇴로의 진입이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은퇴를 한 노인이 은퇴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리적으로 덜 안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보장제도의 미발달로 인해 은퇴 후 소득의 감소가 크고, 은퇴 이후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이외에는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여가활동이 거의 없으며(정경희 외, 2005), 은퇴가 자발적이기보다는 강제적이라는 점에서(이가옥·이지영, 2005) 경제활동의 중단인 은퇴는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연속이론에서 은퇴 직후를 밀월단계로 규정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편, 장기적으로 은퇴 상태에 있는 노인과 은퇴하지 않은 노인의 심리적 안녕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은퇴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되거나 하루 일과를 보내는 자기만의 생활양식의 개발 등을 통해 점차 은퇴생활에 적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생애주기적(life course perspective) 관점에 의하면, 은퇴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현재 개인이 소유한 경제적·개인적·사회적 자원,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배경적 맥락(context)에 따라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Quick and Moen, 1998). 생애주기적 관점에서는, 공적·사적 연금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덜 안녕하게 되며(Kim and Moen, 2002),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개인적 자원은 은퇴로의 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Kim and Moen, 2002). 또한 유배우 상태, 사회적 지지, 사회적 활동과 같은 사회적 자원이 많을수록 은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 특히, 노년기에는 배우자가 정서적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정경희 외, 2005), 유배우인 노인이 무배우인 노인에 비해 심리적으로 안녕할 것으로 본다.

개인의 배경적 맥락 중 성별 변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박기남, 2004).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과거 경제활동의 종사상 지위와 경제활동의 불연속성의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생애주기적 관점에서는 성별에 따라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가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Kim and Moen, 2002; Quick and Moen, 1998). 역할이론과 생애주기적 관점을 연결지어 보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의 종사상 지위가 높고, 경제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은퇴로 인한 역할의 상실이 가져다 오는 심리적 충격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클 것이라고 기대된다(김지경, 2005; Quick and Moen, 1998). 그리고 은퇴 이전부터 여성에게는 가정내 역할이 분명한 반면, 남성은 그렇지 못한 점(이가옥·서미경·고영환·박중돈, 1994)을 고려한다면 은퇴 직후 남성은 가정 내 역할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로의 진입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특히, 농촌지역과 달리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은퇴가 심리적 안녕감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첫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은퇴가 보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과, 둘째, 은퇴 이후에도 친척, 친구, 이웃과 여러 가지 상호 원조활동을 교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 3. 연구방법

#### 1) 표집

본 연구에서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의 「고령화와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1차년도와 3차년도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1차년도 자료는 서울시와 도농복합지역인 춘천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성인 2,529명을 대상으로 건강 및 의료, 심리, 사회복지 및 사회생활의 5개 영역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와 춘천시 구별 조사구의 층화표집, 선정된 조사구에 포함된 동별 통에 대한 집락표집, 선정된 통별 45세 이상 인구의 계통표집을 통해 선정되었다. 자료수집은 전문조사요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에 면접을 실시한 2,529명 중 1,805명(보유율 71.3%)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2) 표본의 선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때문에, 먼저 총 1,805명의 응답자 중 60세 이하 328명을 제외한 61세 이상 1,477명만을 선택하였다. 61세 이상 응답자만을 선택한 이유는, 만 60세를 전통적으로 노령에 이른 것으로 보고 회갑으로 축하하며, 국민연금법상 정상 연금수급 연령이 60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지연과 호정화(2002)에 의하면, 2001년 임금근로자의 은퇴연령은

64.6세인 것으로 나타나, 은퇴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인구통계학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65세보다는 6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안녕상태이므로 3차년도에 본인이 직접 응답하지 않은 30명을 제외시키고, 1차년도에 본인이 직접 응답하지 않은 32명을 차례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은퇴로의 진입상태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때문에, 1차년도 경제활동을 묻는 질문에 결측값을 가지고 있는 3명과 은퇴의 개념을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질병/육아휴가 중인 1명, 실업자 20명, 가정살림을 하고 있는 180명을 포함한 총 189명을 제외시켰다. 그리고 은퇴자는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 은퇴자 중 과거 직업명을 명시하지 않은 4명을 제외시켰다. 또한 비은퇴자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 비은퇴자 중 현재 직업을 명시하지 않은 3명을 차례로 제외시켰다.

다음으로 3차년도 경제활동을 묻는 질문에 결측값을 가지고 있는 8명과 은퇴의 개념을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질병/육아휴가 중인 2명, 실업자 4명, 가정살림을 하고 있는 55명을 포함한 총 69명을 제외시켰다. 3차년도 은퇴자는 모두 과거 직업명을 응답하였으며, 3차년도 비은퇴자 중 1명은 현재 직업을 명시하지 않아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 중 결측값을 가진 사례(1차년도 교육 수학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3명과 1차년도 개인의 용돈에 응답하지 않은 1명)를 차례로 제외하여, 통계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의 크기는 1,124명이었다. 춘천은 1995년부터 도농복합시가 됨에 따라 거주 지역을 단순히 서울과 춘천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서울과 춘천의 동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춘천의 읍면지역은 농촌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표본 중 도시 남성은 291명, 농촌 남성은 238명, 도시 여성은 312명, 농촌 여성은 283명이었다. 각 집단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특성 비교

변수	도시남성 (n=291)	농촌남성 (n=238)	도시여성 (n=312)	농촌여성 (n=283)
종속변수: 3차년도 심리적 안녕 (높은 수=안녕하지 못함)	M=42.6 (SD=12.8)	M=46.7 (SD=12.7)	M=52.0 (SD=12.3)	M=51.5 (SD=12.3)
은퇴변수				
지속적 비은퇴상태	17.2%	53.8%	11.5%	29.7%
은퇴로의 진입	12.4%	12.2%	9.3%	10.2%
비은퇴로의 진입	7.9%	4.6%	2.9%	14.5%
지속적 은퇴상태	62.5%	29.4%	76.3%	45.6%
통제변수				
1차년도 심리적 안녕 (높은 수=안녕하지 못함)	M=46.2 (SD=11.7)	M=50.4 (SD=11.8)	M=55.5 (SD=11.6)	M=56.8 (SD=11.2)
1차년도 연령	M=70.4 (SD=5.6)	M=70.4 (SD=5.4)	M=71.3 (SD=5.9)	M=70.9 (SD=5.8)
경제적 자원				
3차년도 연금수급여부 수급	32.3%	27.7%	4.2%	10.6%

비수급	67.7%	72.3%	95.8%	89.4%
1차년도 주택의 자가 여부				
자가	80.8%	91.6%	53.5%	88.0%
비자가	19.2%	8.4%	46.5%	12.0%
1차년도 한 달 용돈(연속변수, 단위: 만원)	M=23.2 (SD=21.4)	M=15.4 (SD=13.9)	M=12.1 (SD=12.9)	M=9.7 (SD=10.4)
1차년도 주관적 경제상태 (1=매우 어려움, 5=매우 여유 있음)	M=2.5 (SD=0.9)	M=2.3 (SD=0.8)	M=1.9 (SD=0.9)	M=2.0 (SD=0.9)
개인적 자원				
1차년도 교육 수학기간	M=9.8 (SD=4.7)	M=6.3 (SD=4.7)	M=3.5 (SD=4.0)	M=1.9 (SD=2.9)
1차년도 만성질환의 수	M=1.6 (SD=1.6)	M=1.1 (SD=1.1)	M=2.3 (SD=1.8)	M=1.7 (SD=1.4)
1차년도 주관적 건강상태 (1=매우 건강함, 5=매우 건강하지 못함)	M=2.9 (SD=1.1)	M=3.3 (SD=1.1)	M=3.6 (SD=1.0)	M=3.8 (SD=0.9)
사회적 자원				
3차년도 유배우상태				
유배우	84.2%	87.8%	21.5%	31.1%
무배우	15.8%	12.2%	78.5%	68.9%
3차년도 자녀와의 동거여부				
동거	36.8%	34.5%	46.8%	46.3%
비동거	63.2%	65.5%	53.2%	53.7%
1차년도 비동거자녀와의 만남의 빈도	M=3.1 (SD=1.5)	M=3.2 (SD=1.4)	M=2.7 (SD=1.7)	M=3.0 (SD=1.5)
1차년도 사회적 지지 (범위: 1-5, 높은 수=지지적)	M=3.3 (SD=0.7)	M=3.4 (SD=0.7)	M=3.1 (SD=0.8)	M=3.0 (SD=0.7)
1차년도 사회활동 참여정도 (범위: 0-5, 높은 수=참여 높음)	M=1.3 (SD=1.0)	M=1.6 (SD=1.0)	M=1.1 (SD=0.8)	M=1.0 (SD=0.9)

### 3) 종속변수: 3차년도 심리적 안녕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은 부록의 <표 A-1>에서 보듯이 Lawton의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의 17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올해는 사소한 일들로 괴로움이 더 많았다'와 같은 부정적 진술 12개 문항과 '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운이 넘친다'와 같은 긍정적 진술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개별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의 범주형 응답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 진술의 응답은 역순위로 바꾸어서 17개 문항에 평균을 구한 후, 평균에 17을 곱한 점수값을 사용하였다. 17개 문항의 평균을 구한 후 다시 17을 곱한 것은, 3차년도에 1개 사례에서 17개 문항 중 1개 문항에서 결측값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척도의 이론적 범위값은 17에서 85에 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녕하지 못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심리적 안녕감이 종속변수로 사용된다.

도시 남성노인의 3차년도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값은 42.6(표준편차: 12.8), 농촌 남성노인의 평균값은 46.7(표준편차: 12.7)이며, 도시 여성노인의 평균값은 52.0(표준편차: 12.3), 농촌 여성노인의 평균



값은 51.5(표준편차: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안녕하며, 도시 남성노인이 농촌 남성노인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안녕하나, 농촌 여성노인과 도시 여성노인의 심리적 안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4) 은퇴변수

은퇴변수를 만들기 위해, 먼저 응답자의 경제활동을 묻는 질문에 '은퇴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은퇴로, '유급으로 일을 하고 있음'과 '무급가족 종사자'로 응답한 경우는 비은퇴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은퇴여부를 조합하여, (1) 지속적 비은퇴상태(1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비은퇴), (2) 은퇴로의 진입(1차년도 비은퇴, 3차년도 은퇴), (3) 비은퇴로의 진입(1차년도 은퇴, 3차년도 비은퇴), (4) 지속적 은퇴상태(1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은퇴)로 구분한 은퇴변수를 만들었다. 준거집단은 지속적 비은퇴상태으로 은퇴로의 진입, 비은퇴로의 진입, 지속적 은퇴상태는 각각 가변수이다. <표 1>에서 보듯이 도시 남성노인의 대다수(62.5%)는 지속적 은퇴상태인데 비해, 농촌 남성노인은 절반 이상(53.8%)이 지속적 비은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지속적 은퇴상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각각 76.3%, 45.6%).

#### 5) 경제적 자원

개인의 경제적 자원은 3차년도의 연금수급여부, 1차년도 주택의 소유 여부 및 한 달 용돈과 1차년도 주관적 경제 상태를 통해 측정하였다.

연금수급여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1,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연금을 받는 비율은 도시 남성은 32.3%, 농촌 남성은 27.7%, 도시 여성은 4.2%, 농촌 여성은 10.6%로 나타나 성별로 대조를 이루었다. 주택의 소유 여부는 자가는 1, 비자가는 0으로 부호화하였으며, 농촌 남성(91.6%), 농촌 여성(88.0%), 도시 남성(80.8%), 도시 여성(53.5%)의 순으로 주택 자가 소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은 만원 단위로 측정한 연수변수로 도시 남성의 평균 용돈은 23.2만원(표준편차: 21.4만원), 농촌 남성의 평균 용돈은 15.4만원(표준편차: 13.9만원), 도시 여성의 평균 용돈은 12.1만원(표준편차: 12.9만원), 농촌 여성의 평균 용돈은 9.7만원(표준편차: 1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그리고 같은 성별 집단 내에서는 도시 노인에 비해 농촌 노인이 용돈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경제 상태는 1차년도 개인의 주관적 경제 상태를 묻는 1개 문항에 5점 척도(1=매우 어렵다, 5=매우 여유 있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뜻한다. 도시 남성은 평균 2.5(표준편차: 0.9), 농촌 남성은 평균 2.3(표준편차: 0.8), 도시 여성은 평균 1.9(표준편차: 0.9), 농촌 여성은 평균 2.0(표준편차: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 6) 개인적 자원

개인적 자원은 1차년도 교육수준, 1차년도 만성질환의 수, 1차년도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해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수학기간으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수학기간은 도시 남성(평균: 9.8년, 표준편차: 4.7년), 농촌 남성(평균: 6.3년, 표준편차: 4.7년), 도시 여성(평균: 3.5년, 표준편차: 4.0년), 농촌 여성(평균: 1.9년, 표준편차: 2.9년) 순서로 높게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같은 성별 집단 내에서는 도시 노인에 비해 농촌 노인이 교육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의 수는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 간경변, 위궤양, 천식, 골절, 백내장, 암, 우울증, 파킨슨병, 요통, 골다공증, 전립선, 기타 질병 중 지난 2년간 병·의원에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질환의 수를 뜻한다. 진단을 받고 완치가 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또는 진단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질환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시 남성은 평균 1.6개(표준편차: 1.6개), 농촌 남성은 평균 1.1개(표준편차: 1.1개), 도시 여성은 평균 2.3개(표준편차: 1.8개), 농촌 여성은 평균 1.7개(표준편차: 1.4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도시노인보다는 농촌 노인이 만성질환의 수가 적지만, 만성질환의 수는 진단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만성질환이 있으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만성질환의 수가 낮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1차년도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묻는 1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1=매우 건강하다, 5=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지 못함을 뜻한다. 도시 남성의 평균은 2.9(표준편차: 1.1), 농촌 남성의 평균은 3.3(표준편차: 1.1), 도시 여성의 평균은 3.6(표준편차: 1.0), 농촌 여성의 평균은 3.8(표준편차: 0.9)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같은 성별 집단 내에서는 도시 노인에 비해 농촌 노인이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7) 사회적 자원

사회적 자원은 3차년도의 유배우 상태, 3차년도 자녀와의 동거여부, 1차년도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의 빈도, 1차년도 사회적 지지, 1차년도 사회활동의 참여정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유배우 상태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1(유배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무배우)으로 부호화하였다. 각 집단의 유배우율을 살펴보면, 도시 남성은 84.2%, 농촌 남성은 87.8%, 도시 여성은 21.5%, 농촌 여성은 31.1%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동거는 1, 비동거는 0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녀와의 동거율은 도시 여성(46.8%), 농촌 여성(46.3%), 도시 남성(36.8%), 농촌 남성(34.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만남의 빈도는 서열변수로 0=해당 없음, 1=전혀 접촉 없음, 2=한 달에 한 번 미만, 3=한 달에 한 번, 4=한 달에 두세 번, 5=일주일에 한 번, 6=일주일에 두 번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도시 남성은 평균 3.1(표준편차: 1.5), 농촌 남성은 평균 3.2(표준편차: 1.4), 도시 여성은 평균 2.7(표준편차: 1.7), 농촌 여성은 평균 3.0(표준편차: 1.5)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묻는 6개 항목('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내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나는 내 문제를 가족과 상의할 수 있다,' '나는 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 '내 감정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있다,' '내 가족은 내 의사 결정을 기꺼이 돕는다,' '나는 내 문제를 친구들과 상의할 수 있다')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6개 항목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도시 남성의 평균은 3.3(표준편차: 0.7), 농촌 남성의 평균은 3.4(표준편차: 0.7), 도시 여성의 평균은 3.1(표준편차: 0.8), 농촌 여성의 평균은 3.0(표준편차: 0.7)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사회활동 참여정도는 6개 활동(종교모임, 동창회, 자원봉사, 노인정, 이익단체, 여가관련 활동)의 개별 활동에 대해 참여 여부를 묻은 후, 참여하는 활동의 수를 더한 값을 통해 측정하였다. 농촌 남성은 평균 1.6개(표준편차: 1.0개), 도시남성은 1.3개(표준편차: 1.0개), 도시 여성은 평균 1.1개(표준편차: 0.8개), 농촌 여성은 1.0개(표준편차: 0.9개)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통제변수: 1차년도 심리적 안녕, 연령

1차년도 심리적 안녕과 연령은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1차년도 심리적 안녕은 3차년도 심리적 안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연령변수는 연속변수로 도시 남성은 평균 70.4세(표준편차: 5.6세), 농촌 남성은 평균 70.4세(표준편차: 5.4세), 도시 여성은 평균 71.3세(표준편차: 5.9세), 농촌 여성은 70.9세(표준편차: 5.8세)로 나타났다.

## 9) 통계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성별,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도시 남성노인, 농촌 남성노인, 도시 여성노인, 그리고 농촌 여성노인에 대해 별도로 통계분석을 수행한다. 3차년도의 심리적 안녕이 종속변수로 사용되며,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연속변수이므로 OLS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한다. 1차년도 심리적 안녕과 연령을 포함한 통제변수, 그리고 경제적·개인적·사회적 자원을 통제한 이후에도 은퇴변수와 3차년도 심리적 안녕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유의수준 0.05수준). 몇 개의 예외적인 변수를 제외하고는, 1차년도에 측정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차효과(time lags)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골롭과 라이카트(Gollob and Reichardt, 1987)의 방법론에 근거한 것이다. 3차년도 변수가 독립변수로 사용된 예외적인 변수는 연금수급여부, 유배우 상태 및 자녀와의 동거여부변수로, 3차년도 연금수급여

부는 1차년도에 측정이 되지 않아 3차년도에 측정된 연금수급여부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켰으며, 유배우 상태와 자녀와의 동거여부의 경우 1차년도의 상태보다는 3차년도의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되어<sup>2)</sup> 3차년도에 측정된 값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 4.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다른 심리적 안녕과 은퇴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표 2>와 <표 3>에서 보듯이 4개 집단에 별도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4개 집단 각각의 회귀분석 모델의 F통계량에서 알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도시 남성노인 모델은 종속변수의 51.1%를, 농촌 남성노인 모델은 종속변수의 45.1%를, 도시 여성노인 모델은 종속변수의 45.2%를, 그리고 농촌 여성노인모델은 종속변수의 38.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심리적 안녕은 3차년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R<sup>2</sup>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1차년도 심리적 안녕을 제외한 후 다른 독립변수들은 3차년도 심리적 안녕의 변량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도시 남성노인 모델은 종속변수의 39.3%를, 농촌 남성노인 모델은 27.2%, 도시 여성노인 모델은 32.9%를, 그리고 농촌 여성노인모델은 26.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집단별로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도시 남성노인의 경우, 예상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비은퇴 상태에 있는 남성노인에 비해 은퇴로 진입한 남성이 심리적으로 덜 안녕한 것으로 나타났다( $B=0.4510^*$ , 베타= $0.116^*$ ). 그러나, 지속적으로 비은퇴 상태에 있는 남성노인과 지속적으로 은퇴상태에 있는 남성노인의 심리적 안녕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반해, 농촌 남성노인, 도시 여성노인, 농촌 여성노인의 3개 집단에서는, 은퇴변수와 심리적 안녕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표 3> 참조). 이는 은퇴로의 진입이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되, 이러한 관계는 노인의 성,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2) 예를 들어, 1차년도에는 유배우 상태였지만 3차년도에는 무배우 상태라면, 3차년도 심리적 안녕에는 무배우상태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유배우 상태 변수는 객관적인 상태를 측정된 변수로 시차효과가 매우 짧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변수들의 경우에도 1차년도에 측정된 변수값보다는 3차년도에 측정된 변수값들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다른 변수들은 유배우 상태나 자녀와의 동거여부처럼 짧은 시차효과를 가진다고 보기에 어렵다. 특히, 주관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변수들은 3차년도에 측정된 변수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종속변수와 선후관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 패널자료의 분석에서 언제 측정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제시되고 있지만, 골롭과 라이카트(Gollob and Reichardt, 1987)가 제안한 것처럼 시차효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1차년도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표 2> 도시 남성노인과 농촌 남성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도시남성 (n=291)				농촌남성 (n=238)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p-value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p-value
	B	SE	베타		B	SE	베타	
상수	10.641	8.944	-		18.275	11.875	-	
은퇴(준거집단: 지속적 비은퇴상태)								
은퇴로의 진입	4.510	2.112	0.116	*	0.249	2.096	0.006	
비은퇴로의 진입	-2.321	2.412	-0.049		-0.697	3.227	-0.012	
지속적 은퇴상태	0.239	1.617	0.009		2.776	1.732	0.100	
통제변수								
1차년도 심리적 안녕 (연속변수, 높은 수=안녕하지 못함)	0.520	0.064	0.473	***	0.554	0.066	0.518	***
1차년도 연령(연속변수)	0.124	0.107	0.054		0.054	0.140	0.023	
경제적 자원								
3차년도 연금수급여부 (0=비수급, 1=수급)	-1.583	1.356	-0.058		-1.306	1.570	-0.046	
1차년도 주택의 자가 여부 (0=비자가, 1=자가)	-1.352	1.580	-0.042		3.189	2.435	0.070	
1차년도 한 달 용돈 (연속변수, 단위: 만원)	-0.013	0.030	-0.022		0.031	0.050	0.034	
1차년도 주관적 경제상태 (1=매우 어려움, 5=매우 여유 있음)	-1.035	0.783	-0.076		-2.958	0.913	-0.192	***
개인적 자원								
1차년도 교육 수학기간(연속변수)	0.048	0.141	0.017		-0.088	0.155	-0.033	
1차년도 만성질환의 수(연속변수)	0.613	0.412	0.075		0.967	0.666	0.081	
1차년도 주관적 건강상태 (1=매우 건강함, 5=매우 건강하지 못함)	1.434	0.636	0.121	*	-0.210	0.711	-0.018	
사회적 자원								
3차년도 유배우상태 (0=무배우, 1=유배우)	-3.096	1.698	-0.088	+	-0.857	2.066	-0.022	
3차년도 자녀와 동거	-0.073	1.187	-0.003		-2.477	1.388	-0.093	+
1차년도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의 빈도	0.135	0.390	0.016		-0.345	0.472	-0.038	
1차년도 사회적 지지 (범위: 1-5, 높은 수=지지적)	0.401	0.872	0.023		0.413	1.033	0.022	
1차년도 사회활동 참여정도(연속변수)	-1.182	0.596	-0.096	*	0.588	0.699	0.048	
R2	0.511				0.451			
F통계량	16.791***				10.610***			
자유도	(17; 273)				(17;220)			

주: 1) \*\*\*p<0.001\*\*p<0.01\*p<0.05 +p<0.1

2) VIF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는 검색되지 않았음.

3) 1차년도 심리적 안녕을 제외한 R<sup>2</sup>의 값은 도시남성은 0.393, 농촌남성은 0.272로 나타남.

〈표 3〉 도시 여성노인과 농촌 여성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도시여성 (n=312)				농촌여성 (n=283)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p -value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p -value
	B	SE	베타		B	SE	베타	
상수	21.730	9.882	-	*	46.431	11.158	-	***
은퇴(준거집단: 지속적 비은퇴상태)								
은퇴로의 진입	-2.475	2.374	-0.059		0.187	2.194	0.005	
비은퇴로의 진입	-4.385	3.571	-0.060		0.413	2.027	0.012	
지속적 은퇴상태	-2.816	1.757	-0.098		0.265	1.658	0.011	
통제변수								
1차년도 심리적 안녕 (연속변수, 높은 수=안녕하지 못함)	0.490	0.060	0.463	***	0.456	0.062	0.418	***
1차년도 연령(연속변수)	0.020	0.106	0.010		-0.197	0.125	-0.093	
경제적 자원								
3차년도 연금수급여부 (0=비수급, 1=수급)	-2.213	2.770	-0.036		-4.103	2.057	-0.103	*
1차년도 주택의 자가 여부 (0=비자가, 1=자가)	0.630	1.318	0.026		-4.292	1.917	-0.114	*
1차년도 한 달 용돈 (연속변수, 단위: 만원)	0.004	0.046	0.004		-0.113	0.063	-0.096	+
1차년도 주관적 경제상태 (1=매우 어려움, 5=매우 여유 있음)	-2.195	0.701	-0.165	**	-1.433	0.769	-0.102	+
개인적 자원								
1차년도 교육 수학기간(연속변수)	-0.290	0.159	-0.095	+	-0.462	0.232	-0.111	*
1차년도 만성질환의 수(연속변수)	0.646	0.346	0.092	+	0.835	0.451	0.098	+
1차년도 주관적 건강상태 (1=매우 건강함, 5=매우 건강하지 못함)	1.656	0.669	0.130	**	0.283	0.781	0.020	
사회적 자원								
3차년도 유배우상태 (0=무배우, 1=유배우)	1.274	1.464	0.043		-0.160	1.457	-0.006	
3차년도 자녀와 동거	1.595	1.167	0.065		-1.718	1.252	-0.070	
1차년도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의 빈도	0.232	0.346	0.032		-0.667	0.405	-0.083	
1차년도 사회적 지지 (범위: 1-5, 높은 수=지지적)	-0.351	0.769	-0.024		0.661	0.925	0.039	
1차년도 사회활동 참여정도(연속변수)	0.893	0.712	0.061		0.338	0.719	0.024	
R <sup>2</sup>	0.452				0.388			
F통계량	14.286***				9.867***			
자유도	(17; 294)				(17;265)			

주: 1) \*\*\*p<0.001\*\*p<0.01\*p<0.05 +p<0.1

2) VIF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는 검색되지 않았음.

3) 1차년도 심리적 안녕을 제외한 R<sup>2</sup>의 값은 도시남성은 0.329, 농촌남성은 0.265로 나타남.

노인의 성과 거주지역별로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2〉와 〈표 3〉에서 보듯이 4개 집단 모두 1차년도 심리적 안녕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3차년도 심리적 안녕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변수인 1차년도 심리적 안녕을 제외하고는 3차년

도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개 집단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어떤 요인이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도시 남성노인의 경우,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판단할수록( $B=1.434^*$ ,  $\beta=0.121^*$ ), 그리고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B=-1.182^*$ ,  $\beta=-0.096^*$ ) 심리적으로 안녕하였다. 경제적 자원의 경우, 어느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촌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개인적, 사회적 자원 중 주관적 경제상태가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상태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수록 심리적으로 안녕한 것으로 나타났다( $B=-2.958^{***}$ ,  $\beta=-0.192^{***}$ ). 그리고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더 안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에는 미달하였다( $B=-2.477+$ ,  $\beta=-0.093+$ ).

도시 여성노인의 경우, 경제상태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수록( $B=-2.195^*$ ,  $\beta=-0.165^*$ ), 그리고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판단할수록( $B=1.656^*$ ,  $\beta=0.130^*$ ) 심리적으로 안녕하였다.

농촌 여성노인의 경우, 경제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B=-4.103^*$ ,  $\beta=-0.103^*$ ), 그리고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는 경우( $B=-4.292^*$ ,  $\beta=-0.114^*$ )에 심리적으로 더 안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자원의 경우, 교육수학기간이 높을수록( $B=-0.462^*$ ,  $\beta=-0.111^*$ ) 심리적으로 안녕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는 은퇴로의 진입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가 노인의 성,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준다. 도시 남성노인, 농촌 남성노인, 도시 여성노인, 그리고 농촌 여성노인 중 오직 도시 남성노인만이 은퇴로 진입하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안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차년도 심리적 안녕을 제외하고는, 성,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남성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하다고 판단하고 사회활동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심리적으로 안녕한 데 비해, 농촌 남성노인은 경제상태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수록 심리적으로 안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경제상태가 여유 있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수록 심리적으로 안녕하였으며, 농촌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연금을 수급하고,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는 경우에,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심리적으로 더 안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역할이론에서 설명하듯이 경제활동의 중단은 역할상실을 가져오고, 이는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가져옴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되,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시 남성노인에게만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도시 남성노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비은퇴 상태에 있는 노인과 지속적으로 은퇴상태에 있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은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해 간다는 기존의 국외문헌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Reitzes and Mutran, 2004; van Solonge and Henkens, 2005).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설명하듯이 본 연구결과는 개인의 성별에 따라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는 다르며, 여성노인에게는 은퇴변수가 심리적 안녕과 연관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첫째 남성에게 비해 여성은 생애주기를 통해 경제활동의 불연속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중단인 은퇴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정 내 역할이 남성에게는 불분명하다는 점 역시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은퇴가 남성노인에게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역할이론에서 설명하듯이 일을 통해 느끼는 자아정체감이 크면 클수록 은퇴가 주는 역할상실이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일반적으로 종사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을 통해 느끼는 자아정체감이 약하여 여성노인에게 은퇴와 심리적 안녕이 연관이 없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은퇴가 도시 남성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농촌 남성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첫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은퇴가 보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은퇴로의 진입이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사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경제적 보상이 낮다는 점에서 농사일을 그만두는 은퇴가 농촌 노인에게는 고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은퇴했음'이라고 응답하였지만, 돈벌이가 아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소규모로 농사일을 계속 짓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는 은퇴로의 진입이 도시 지역의 사무·관리직이나 단순노무직과는 달리, 역할 상실의 문제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과 연관이 없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경우, 은퇴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편, 도시 노인에 비해 농촌 노인은 은퇴 이후에도 친척, 친구, 이웃과 여러 가지 상호 원조활동을 교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로의 진입과 심리적 안녕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의 성과 거주 지역을 조합한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남성노인의 경우 경제적 자원을 나타내는 변수는 심리적 안녕과 연관이 없는 데 비해, 농촌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주관적 경제상태가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도시 남성노인의 경우에만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심리적 안녕과 연관이 있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 가정 내 역할이 보다 분명하기 때문에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심리적 안녕과 연관이 없는데 비해, 남성의 경우 가정 내 역할이 분명치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익숙하여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단, 농촌 남성에게서 사회활동 참여정도와 심리적 안녕이 연관이 없게 나타난 것은, 종교모임, 동창회, 자원봉사, 노인정, 이익단체, 여가관련 활동과 같은 사회활동보다는 아마도 친척, 친구, 이웃과 나누는 여러 가지 비공식적 상호 원조활동이 노인에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도시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주관적 경제 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비해, 농촌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연금수급여부와 주택의 자가 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경제 상태와 교육 수확기간이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아마도 도시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주관적인 판단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비해, 농촌 여



성노인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경제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제 수준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농촌 여성노인의 경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할수록 심리적으로 덜 안녕한 것은 생애과정에서 살아오면서 누적되었던 불리한 지위가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농촌 여성노인의 경우, 연금수급여부가 심리적 안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농촌 여성노인의 공적 연금수급권은 노후 소득보장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의 증진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연금 수급을 받는 경우가 드물며, 여성노인은 경제활동의 단절과 불연속성이 심해 국민연금 수급의 전제조건(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농촌 여성노인은 대부분 무급 가족종사자로 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또한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개시가 되지만, 현 세대 농촌 여성노인은 국민연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연령제한으로 인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최현수, 2002). 본 연구결과는 농촌 여성노인의 심리적 안녕의 증진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와 같은 노후의 공적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노인의 성, 거주 지역에 따라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가 다르고,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본 연구결과는, 은퇴준비/노후준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경우 참여자의 성과 거주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도시 남성노인에게 은퇴 직후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사회활동 참여가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반면, 농촌 여성노인에게 공적·사적 연금의 가입 필요성과 노후 소득보장의 중요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sup>3)</sup>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울과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 둘째,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변수들이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농촌 노인의 경우 비공식적 형태의 상호 부조에 대한 참여가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가 이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비공식적 형태의 상호 부조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역할이론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서 은퇴로의 진입에 따라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은퇴와 사회활동 참여정도 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이 도시 남성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에서 질문한 사회활동의 수와 종류가 달라 사회활동 참여정도의 변화와 은퇴와의 상호작용 등을 살펴볼 수 없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을 추가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농촌 남성노인은 1차년도 심리적 안녕과 주관적 경제상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도시 여성노인은 1차적 심리적 안녕과 주관적 경제·건강상태만이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결과만으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실천적 시사점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울과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노인표본을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의 제한점에 따른 것일 수 있으므로 향후 후속 연구에서 이들 집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남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남성노인, 농촌 남성노인, 도시 여성노인, 농촌 여성노인별로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별도로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성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더 나아가 성과 거주 지역을 조합한 노인 집단에 따라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름을 밝힘으로써 노인 집단간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준비/노후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참고문헌

- 권중돈·조주연. 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애순·윤진. 1995. “은퇴 이후의 심리·사회적 영향”. 『한국노년학』 15(1): 141-158.
- 김지경. 2005.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55-76.
- 박경숙(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 박기남. 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 신화용·조병은. 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39-51.
- 윤순덕·한경혜. 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7-78.
- 이가옥·서미경·고경환·박중돈.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가옥·이지영. 2005.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93-120.
- 장지연·호정화. 2002.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 『노동정책연구』 2(2): 1-21.
-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 2005.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연경·조병은. 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최성재. 1989. “퇴직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 47-65.
- 최현수. 200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측정”. 『한국노년학』 22(3): 223-243.
- 한혜경. 2002. “조기퇴직자의 생활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일상생활 조사연구: 일상생활 만족/불만족 근거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1: 287-310.
- Atchley, R. C., and A. S. Barusch. 2004. *Social forces and aging*. 10th edition.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Drentea, P. 2002. “Retiremen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4(2): 167-194.
- Gollob, H. F., and C. S. Reichardt. 1987. “Taking account of time lags in casual models.” *Child Development* 58(1): 80-92.

- Kim, J., and P. Moen. 2001. "Is retirement good or bad for subjective well-be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3): 83-86.
- Kim, J. E. and P. Moen. 2002. "Retirement transitions,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life-course, ecologic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57B(3): 212-222.
- Marshall, V. W., P. J. Clarke and P. J. Ballantyne. 2001. "Instability in the retirement transition." *Research on Aging* 23(4): 379-409.
- Mirowsky, J., and C. E. Ross. 1992. "Ag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187-205.
- Moen, P. 1996. "A life course perspective on retirement, gender, and well-being."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2): 131-144.
- Quick, H. E., and P. Moen. 1998. "Gender, employment, and retirement quality: A life course approach to the differential experiences of men and wome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3(1): 44-64.
- Reitzes, D. C., and E. J. Mutran. 2004.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Stages and factors that influence retirement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Development* 59(1): 63-84.
- Ross, C. E. and P. Drentea. 1998. "Consequences of retirement activities for distress and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 317-334.
- van Solinge, H. and K. Henkens. 2005. "Couples' adjustment to retirement: A multi-actor pane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60B(1): S11-S20.
- Warr, P., V. Butcher, I. Robertson, and M. Callinan. 2004. "Older people's well-being as a function of employment, retiremen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role preferenc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5: 297-324.
- Wells, Y. D., and H. L. Kendig. 1999. "Psychological resources and successful retirement." *Australian Psychologist* 34(2): 111-1115.

## Gender, Residential Areas, Retirement Transi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Yoon, Hyun-Sook  
(Hallym University)

Lee, Mi-Ji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a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transi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may differ by gender and residential areas, and whether associative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may vary by gender and residential areas.

The sample included 1,124 older adults aged 60 and over, which derived from the first wave and the third wave data of the "Aging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Korea: A Longitudinal Study" living in Seoul and Chuncheon. The total sample was divided into four sub-samples (urban male elders, rural male elders, urban female elders, and rural female elders) to answer research question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measured by measured by the PGCMS developed by Lawton, and a retirement variable had four categories: being continuously non-retired, newly retired, newly non-retired, and being continuously retired with a reference group of being continuously non-retired.

Multivariate OLS regression was run separately for the four groups. For urban male elders, retirement transition was associated with worse psychological well-being whereas no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transi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found for rural male elders, urban female elders, and rural female elders. Associative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varied by gender and residential areas.

The findings implies that a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transi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may differ by gender and residential areas, and these differential effects of retirement transitions may be attributable to different life experiences and economic activities through a life course and different roles after retirement. Also, different associative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four sub-samples reflect variations in their different life course.

Key words: retirement, psychological well-being, gender, residential areas, a panel study

[논문접수일 2006. 6. 29. 게재확정일 2006. 10. 10.]

## 부 록

<표 A-1> 심리적 안녕 변수: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은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내용이 최근 선생님의 감정이나 기분을 어느 정도로 나타내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올해는 사소한 일들로 피로움이 더 많았다					
(2) 나는 때때로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곤 한다					
(3) 나는 슬퍼할 일들이 많다					
(4) 나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한다					
(5) 나는 이전보다 화를 더 많이 낸다					
(6) 대개 나는 사는 것이 힘들다					
(7) 나는 일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8)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한다					
(9) 내가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					
(10) 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운이 넘친다					
(11)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12) 나이가 들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아진다					
(13) 나는 때때로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느낀다					
(14) 나는 지금 젊었을 때보다 행복하다					
(15) 나는 내 친구와 친척들을 충분히 만난다					
(16)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꽤 만족감을 느낀다					
(17)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